

“햇마늘 가격 폭락 막자” 정부 조기 수매 착수

올 5만여t 과잉생산 예상...전남 1761t 등 1만t 수매 시작 마늘 농가들 1kg당 수매가 4000원 보장·수매 확대 요구

올해 마늘이 5만t 이상 과잉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전남 1761t 등 1만t에 대한 햇마늘 수매를 시작했다. 마늘 농가들은 1kg당 수매가 4000원 보장과 수매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수매가 마늘값 급락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햇마늘(대서중·남도중) 정부 수매 물량은 전남 1761t 등 1만t으로 배정됐다.

수매는 전남(1761t)과 충남(2119t),

경북(3612t), 경남(1357t), 제주(515t), 대구(367t), 전북(207t), 충북(67t) 등 8개 시·도지역에서 이뤄진다. 재배면적 100ha 미만 특·광역시와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은 시·도는 수매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정부는 전남 1285t, 경남 6646t, 경북 5071t 등 9개 시·도 34개 사·군(지역농협 101개)로부터 1만6350t를 사들였다.

올해 전남 수매 목표량은 지난해 수매량보다 37%(476t) 늘어났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남도중 781t(저온 304t)과 대

서중 504t이 정부 수매됐다.

올해는 수매가가 지난해와 같게 1등급(대서중 5.5cm 이상·남도중 5.0cm)은 kg당 2300원, 2등급(대서중 4.5cm·남도중 4.0cm) kg당 2100원으로 정했다.

수매 대상은 농협과 재배계약은 맺은 농가들로, 마늘의무자조금에 가입한 농가도 해당한다.

aT는 올해 마늘 생산량이 5만t 이상 과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해보다 수매 시기를 한 달 보름 앞당긴 지난 28일부터 오는 8월까지로 확정했다.

정부수매는 단기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수매 대상을 마늘 자조금 가입 농가로 제한하고 수매 과정에서 농가로부터 내년 재배면적을 5% 감

축하다는 동의를 받고 있다. 올해 사·도별 수매 신청·배정량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배면적 조절 실적을 반영해 수매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지난 25일 기준 광주양동시장에서 팔린 햇마늘 1kg 가격은 6000원으로 1년 전 가격(7000원) 보다 14% 떨어졌다.

이거위 aT 수급이사는 “과잉생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부진까지 더해져 마늘가격 하락 등 생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수매가 조기에 시행됨으로써 과잉 물량의 신속한 시장격리가 이루어져 선출하기 안정적인 가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어업생산량 1분기 75만톤... 14% 감소

2020년 1분기 전남 어업생산동향

※()는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



4월들어 7개월만에 반등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오던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이 4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31일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남 어업생산량은 26만 6187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 (3만7133t) 증가했다. 전남 어업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해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9월 -5.1%를 시작으로 -11.8% (10월), -13.7% (11월), -24.8% (12월), -15.5% (2020년 1월), -9.4% (2월), -16.6% (3월) 등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 달 생산량은 반등했지만 올해 1분기 생산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만 t(-14%) 이상 줄어든 75만t을 기록했다.

어업별로 가까운 바다에서 하는 천해양식어업이 72만265t으로 14.7%(-12만 4112t), 일반해면어업이 2만8157t으로 7.0%(-2113t), 내수면어업이 1377t으로 17.8%(-299t) 감소했다.

주로 마을 어업에 의존했던 굴류는 동절기 고수온에 따른 생육 부진과 어업인 고령화, 조업 활동 부진으로 21.7%(-

2182t) 줄었다.

멸치와 낙지는 어군 형성 부진과 어장 황폐화에 따른 자원고갈 등으로 각 4.8% (-241t)와 25.2% (-355t) 급감했다.

대표적인 양식업종인 미역류와 김류는 시설량 감소, 해수온 상승, 갯벌 피해 등으로 11.7%(-5만1969t)와 23.3%(-7만 4232t)가 줄었다.

내수면 어업의 주요 품종인 뱀장어와 항어, 메기는 각 32.0%(-453t), 43.6%(-24t), 57.9%(-22t) 줄었다.

뱀장어는 치어가격 상승으로 입식량이 줄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로, 항어·메기는 양식 물량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생산량 급감했다고 호남통계청은 설명했다.

1분기 전남 어업생산액은 7483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3.4%(-1161억원)가 감소했다.

일반해면어업이 1364억원으로 5.5%(-80억원), 천해양식어업 5790억원으로 15.1%(-1027억원), 내수면어업은 330억원으로 13.8%(-53억원)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양파깍고·김치담그고·이웃사랑 나누고

농가 일손돕기 ‘3GO’ 운동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9일 함평군 대동면 일원에서 ‘전남농협 함께 3고(GO)’ 행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사는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양파깍고(GO)’,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양파김치 담그고(GO)’, 담근 양파김치를 지역 복지센터에 기증하는 ‘이웃사랑 나누고(GO)’ 순으로 진행했다.

지역본부·농협함평군지부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40여 명의 봉사단이 대동면 백호리 양파재배 농가를 방문해 양파 수확 일손돕기를 했다.

대동면 용성리에서는 합평산 양파로 만든 양파김치 담그기 행사와 함께 이날 담근 양파김치 150박스를 함평군에 전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김석기·왼쪽 5번째)가 지난 29일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에서 지역민에게 나눠줄 양파김치 150상자를 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농협 축산물 나눔행사 새로운 미래 먹거리 ‘곤충산업’... 지난해 판매액 405억원

최근 축산물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지역 노년복지시설에서 축산물 나눔 행사를 열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영암축협은 이날 영암지역 노인 전문요양원을 찾아 ‘이웃사랑 축산물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눔축산운동은 2012년부터 범 축산인이 펼치는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곤충업 196개소

지난해 곤충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전남지역 곤충업 농가·법인 200개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곤충업 신고자는 지난해 말 기준 2535개소로 전년보다 9.4%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51개소로 가장 많고 경북(443개소)과 경남(265개소)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신고자는 196개소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생산업 1155개소, 가공업 8개소, 유통업 148개소, 생산·가공·유통업 1224개소로 전체의 48.3%가 두 가지 이상의 곤충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곤충 판매액은 405억원 규모로, 지난해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곤충 종류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 189억원, 동애등에 60억원, 귀뚜라미 43억원, 갈색거저리 28억원, 장수풍뎡이 26억원, 사슴벌레 13억원 등의 순으로 판매액이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슴벌레(-3.5%)

와 장수풍뎡이(-0.6%), 귀뚜라미(-6.8%)의 판매액은 감소했지만,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주로 쓰이는 동애등에(173.1%), 흰점박이꽃무지(23.2%), 갈색거저리(4.7%) 등은 증가했다.

특히 동애등에는 최근 3년간 판매액이 2017년 8억원, 2018년 22억원, 2019년 6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 전체 판매 순위가 2018년 5위에서 지난해 2위로 올라섰다.

흰점박이꽃무지와 갈색거저리는 농가 수가 각각 3.1%, 8.9% 줄었는데도 판매액은 늘어 규모화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어촌 노후주택 수리봉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했던 농어촌 노후주택 수리봉사를 지난 27일 시작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이날 강진군 도암면 일원에서 독거노인 노후주택과 마을회관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KRC희망나눔미 마중물봉사단’ 활동을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직원 17명이 동참했다.

전남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2006년 ‘마

중물 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기계, 전기, 건축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을 주축으로 결성됐다.

봉사단은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 전기시설 점검·수리 및 전기설비와 전동 교체를 돕고 있다.

박종호 전남본부장은 “마중물 봉사단 활동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